

생태비즈니스센터 개소... 청년창업 혁신공간 '역할'

역세권에 조성 랜드마크 기대감
주민 직접 운영 마을카페 등 조성
지방소멸 극복·도시재생 속도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가 문을 열었다. 마을카페, 청년창업, 바이오연구 등 도시재생 미래 혁신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비즈니스센터는 지역민이 직접 운영하고 청년들의 창업공간이 조성돼 있어 지방소멸 대응과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순천역 인근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림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입주단체 및 기업 대표,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열림식은 센터 앞 도로 특별무대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식전 공연과 경과보고, 축사,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생태 체험 행사 등이 포함됐다. 또 비즈니스가 가능한 마을 카페도



지난 17일 순천역 인근에 들어선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 열림식이 열려 노관규 순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순천시 제공

открыл.

이번에 문을 연 생태비즈니스센터는 역세권에 새로운 건축물과 미래 혁신적인

내부 공간 구성으로 순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 구성은 1층에는 역세권 마을 주민

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카페와 시민들의 휴식공간, 전시실, 세미나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2층에는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12개 기업과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가 입주해 있다.

3층에는 150여 명이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컨퍼런스홀이 있고, 바이오 실험실이 운영 중이다.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으며 옥상은 순천의 국가하천인 동천과 시가지지를 조망할 수 있어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와 쇠락해진 역세권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생태비즈니스센터가 열려 마을주민이 직접 운영·관리하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업공간, 바이오 기술개발 등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 공간이 마련되어 역세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비즈니스센터는 연면적 3905㎡(약1200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19년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에 준공되어 이번에 열림식을 갖게 됐다.

순천=배서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극한 강우 대비 댐 현장 특별점검

홍수조절용량 3배 확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올여름 극한 강우가 올 것을 가정하고 전 유역 댐 현장 예찰에 돌입하는 등 홍수기 비상 체제를 조기에 가동한다.

최근 때 이른 무더위와 국내·외 각지에서 이례적인 폭우가 계속되는 만큼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직접 댐 현장부터 홍수 대응 태세를 점검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윤석대 사장은 지난 17일 섬진강댐에서 전사 특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임원진, 본사 및 전국 댐 지사 부서장과 함께 홍수 대비 체계점검과 시설물 시험가동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29일 본사에서 개최한 전사경영회의에 이어 올해 첫 현장에서 열린 전사 홍수대응체계 점검이며 6월까지 군남댐과 대정댐 등 전 유역 댐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어 하천과 도시 홍수를 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공조체계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와 인명피해 예방

에 총력을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이전 선제적 사전방류로 다목적댐의 설계 홍수조절용량 약 21.8억 톤의 3배 수준인 약 61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여 올해 홍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저수량이 가장 큰 소양강댐(29억 톤) 2개 이상을 몰그릇으로 비워놓는 효과와 맞먹는다.

물관리 디지털트윈 시스템과 연계한 홍수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댐 방류에 따른 하류 하천의 영향을 신속히 분석하여 댐과 하천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인 댐 홍수조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윤석대 사장은 "최근 극한 홍수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올해 홍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댐은 홍수방어를 위한 일차적인 역할을 해야 하므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 홍수까지 염두에 두고 모든 댐에 대해 위기 대응체계를 견고히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순천기적의도서관, 북스타트 주간 행사 운영

순천시는 오는 24일까지 2024년 북스타트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순천기적의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주간 행사로 그림책 활용법 부모교육(21일), 북스타트 주간 책 놀이(23일), 가족 대상 정주희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23일)을 진행한다.

이 밖에 삼산·조례호수·신대 시립도서관에서 올해의 테마 '집'을 주제로 전시와 포토존을 운영하며 도서관을 방문하는 영유아들에게 그림엽서, 스티커, 도서 목록 리플렛 등 선물을 증정한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

순천=배서준 기자

자!'는 취지로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독서 문화운동으로, 순천시는 2004년부터 매년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북스타트 꾸러미는 450명이 받았으며 꾸러미 수령을 원하는 시민은 순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책으로 공동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순천'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에 다양한 색상의 장미가 피어나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국가정원, 장미꽃 활짝

5월 순천만국가정원은 형형색색의 장미가 만개해 관람객을 사로잡고 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국가정원에는 게브뤼더그림, 서니스카이 등 새로운 장미 품종을 포함 56종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으며, 장미를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조형물을 감싸올라 피어나는 정원부터, 회랑을 거닐며 감상할 수 있는 공간까지 로맨틱한 장미 정원을 만끽할 수 있

다.

장미꽃 커튼 터널을 지나 장미 꽃병 포토존에 앉아 장미향과 함께 추억을 남기기에 더할 나위 없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 4월1일 우추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주제로 개장하여 정원에 애니메이션을 입혀 새로운 정원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으며 127만 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소방,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사전신고 당부

순천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관내 공사장 등 건설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사전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 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

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용접 불티가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화할 때도 있어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 소

방서 및 관계인에게 사전신고 △소화기, 방화포를 이용한 용접 불티 비산방지조치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 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용단 작업 사전 신고를 통해 더욱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